대산發 첫 합작안 가동… NCC 통합 재편 전국으로 확산

석유화학업계, 공동안 제출

롯데·HD현대, 기활법 승인심사 신청
NCC 합리화로 생산·공정 효율 제고
여수·울산으로 구조조정 논의 확대
정부, 연말 시한 앞두고 압박 강화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전경. /롯데케미칼

충남 대산 석유화학 산업단지에서 첫 자율 구조조정안이 마련되면서 업계 전반에 추가 재편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연말 제출 시한을 못 박으며 각 기업에 구조조정 추진 압박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개편에 참여하기 위해 HD현대케미칼과 공동으로 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

이번 사업재편안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과잉으로 지적돼 온 납사 크래커(NCC) 설비 합리화를 목표로 롯데케미칼 주요 사업장인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하고 해당 분할회사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8월 20일 양사를 포함한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자율 협약을 체결한 지 100일을 앞두고 업계 첫 구조조정안이 제출된 셈이다.

양사는 합병 이후 대산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제품 생산을 단일 체계로 운영해 생산·공정 일관성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고부가 및 친환경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까지 병행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양사가 제출한 사업재편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산업부는 계획안의 타당성과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 절차가 종료되면 승인 여부와 지원 범위가 기업에 통보된다. 승인 기업은 기활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 필요한 분할·합병 등 절차 간소화와 세제 혜택, 설비·공정 개선 등 설비투자 관련 자금지원, 연구개발(R&D) 및 경영 자문, 고용 안정 프로그램 등이 적용된다. 산업용지 활용 특례도 제공돼 사업재편 이행 여건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산에서 시작된 구조조정 흐름은 여수·울산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가 각각 208만톤, 90만톤 규모의 NCC를 두고 컨설팅을 진행하며 설비 통폐합 방안을 검토 중이다. GS칼텍스 정유공장에서 생산되는 나프타를 LG화학이 원료로 사용하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울산에서는 SK지오센트릭, 대한유화, 에쓰오일이 연내 구조조정안 마련을 위해 컨설팅 회사를 선정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여수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를 열고 NCC 보유 기업들의 신속한 재편을 촉구했다. 정부가 연말을 제출 시한으로 못 박은 만큼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말까지 한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각 기업도 재편안 제출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흐름을 따르지 않는 기업은 구조조정 국면에서 사실상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롯데·HD현대, 대산 NCC 통폐합 추진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착수

산업부, 첫 사업재편 절차 공식개시
대산 분할합병으로 운영 효율 제고↑
승인 시 세제·특례 등 지원 패키지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영향 심사가 동시에 개시됐다. 정부가 지난 8월 제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의 첫 프로젝트가 3개월여 만에 윤곽을 드러냈다.

산업통상부가 26일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접수하면서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첫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산업부에 제출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신설법인이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후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합병법인 지분을 50%씩 보유한다.

합병회사는 NCC(나프타분해설비) 중심 중복 자산을 통합해 범용 제품 중심의 비효율 구조를 정비하고, 정유-석화 수직계열화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부가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화해 중장기 수익 기반도 강화한다.

이번에 제출된 사업재편계획은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구조변경 타당성, 재무건전성 개선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친다. 승인 시 세제 혜택과 상법 특례 적용, 그리고 R&D·규제특례·원가절감 패키지 등이 포함된 '맞춤형 기업지원 패키지'가 동시에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추가 프로젝트의 사업재편계획서 제출을 목표로 업계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유-석화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으로 중동·중국의 최신 설비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재편 기업들의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위해 '석유화학산업 고부가화 R&D 로드맵'을 통해 사업재편 참여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도 이날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전심사에 착수했다.

NCC 시장은 기초유분이 정밀화학·플라스틱·섬유 등 다수 산업으로 확산되는 산업의 '뿌리'로, 대기업 설비 통합은 중소 가공업체·수요 기업·지역 경제 전반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장집중도 변화뿐 아니라 생산·공급 안정성, 중소기업 피해 가능성, 국민경제적 효율성 등 폭넓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전심사 접수를 유도했는데, 본계약 체결과 정식 신고가 내년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결합 사전협의 제도와 사전컨설팅을 통해 거래 구조에 대한 정보를 사전 확보하고,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조기 제출하도록 독려해 왔다. 이번 결합 심사 결과는 향후 석유화학 구조개편 프로젝트 전반에 사실상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석유화학 대기업들의 사업재편은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 인접시장과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 기타 국민경제적 측면의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증·심사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어진 경쟁당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